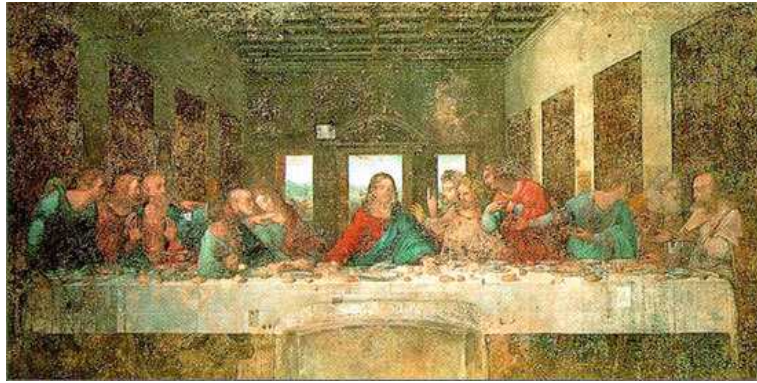


Holy Communion
the Lord's Supper



성 만찬

the Eucharist
the Sacrament

김요한 목사

추천의 글

주님과의 아름다운 소통과 신비를 드러낸 거룩한 성만찬 말씀의 맑은 고백을 통해서 보통 설교에서 느끼지 못한 강렬한 감동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만찬 속에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을 끌어안은 힘이 주님의 살과 피가 말씀 속에 흐르고 있기에 성만찬 말씀의 맛이 더욱 은혜롭고 값지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형제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진실이 성만찬 말씀에 차오르고 있기에 생명으로 엮은 성만찬 말씀은 성만찬을 가까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게 빠지는 기쁨과 함께 큰 소망과 위로를 얻게 만드는 52주로 엮은 귀한 성만찬 말씀이 주옥같이 상한 영혼에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1982년 1월 15일 리마(Lima)에서 채택된 "세례, 성만찬, 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이라는"리마문서"는 성만찬에 관한 신학적 표현을 그대로 재생시켜 만든 예배 모델 "리마예식서"를 함의하여 성서와 초대교회 예배전승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마문서의 정신으로 기독교 예배에서 주일마다 성만찬예배를 반드시 행하여야 하며, 성만찬 예배를 통한 교회일치운동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말씀과 성만찬의 균형을 이루는 예배 신학의 확립이 필요한 시대에 이 귀한 성만찬 말씀 설교집을 통하여 예배의 갱신을 이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축복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일에 수고하신 김요한 목사님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2월

전한민대학교총장 장성우목사

머 리 말

그동안 주일 예배에서의 성찬식 때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낮은 곳에까지 내려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을 성도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며 주님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종으로써 큰 보람이었고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분부하신 교회의 거룩한 의식으로써,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신자로서의 참된 삶을 함축해서 가르쳐주는데, 성만찬을 집행하면 할수록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특히 오늘날처럼 교회의 본질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성만찬은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교회들이 잃어버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의 작은 바램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너무 기뻐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주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성만찬 앞에서 춤이라도 추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정리하여 작은 책으로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생명교회

김요한 목사

목 차

- 1)성만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분부하신 거룩한 성례로, 이를 행함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눅22:19)
- 2)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 교회에도 똑같이 분부하셨습니다(고전12:23-25)
- 3)주일 모임은 성만찬을 떼기 위함입니다(행20:7@)
- 4)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데 있습니다(출20:24)
- 5)주님은 성만찬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출20:24)
- 6)성만찬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입니다(고전10:21)
- 7)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눅22:14-15)
- 8)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식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시23:5)
- 9)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창4:4)
- 10)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로 드려져야 합니다(레17:11)
- 11)성만찬에는 주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마26:26-28)
- 12)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에게 축복했습니다(창14:18-20)
- 13)사도 바울도 성만찬으로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고전10:16)
- 14)성만찬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 가게 합니다(요17:3)
- 15)성만찬은 우리로 죄와 싸울 담력과 능력을 더해 줍니다(마27:46,고난주일)

- 16)성만찬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요20:27,부활주일)
- 17)성만찬으로 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얻습니다(행2:46)
- 18)성만찬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듭니다
(고전10:17)
- 19)성만찬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씻어줘야 합니다(슥13:1)
- 20)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를 기록하게 합니다
(요17:17)
- 21)성만찬은 내가 먼저 주는 진리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마26:26)
- 22)하나님께서 성만찬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눅22:20궤36:27,성령강림주일)
- 23)성만찬은 신비하게도 경건의 능력을 더해 줍니다
(딤후3:16)
- 24)성만찬을 받는 자에게는 세상의 재앙도 넘어 갑니다
(출12:13)
- 25)성만찬은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게 합니다(요일1:1)
- 26)성만찬은 자기를 부인하신 주님을 본받게 합니다(레2:1)
- 27)성만찬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보며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히12:2)
- 28)성만찬은 우리들로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롬8:29)
- 29)성만찬은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줍니다
(요6:53)

- 30)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요6:54)
- 31)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에 유일한 생명 양식입니다(요6:55)
- 32)성만찬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요6:56)
- 33)성만찬은 살아있는 산 자들의 양식입니다(요6:57)
- 34)성만찬은 자주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고전11:25)
- 35)성만찬은 전도의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고전11:26)
- 36)성만찬을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고전11:27)
- 37)성만찬은 자기를 살피게 합니다(고전11:28-29)
- 38)하나님은 성만찬을 받는 자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니다(고전11:30-32)
- 39)성만찬은 우리 영혼의 해독제입니다(민21:8-9)
- 40)세상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도 나음을 입습니다(마9:20-22)
- 41)우울증도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때에는 치료가 됩니다(왕상19:4-8)
- 42)성만찬은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밝혀 줍니다(눅24:30-31)
- 43)성만찬은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신 주님을 배우게 합니다(눅22:17, 추수감사주일)
- 44)성만찬을 꾸준히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미혹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요일4:2-3)
- 45)성만찬으로 거짓 것이 드러나고 그 정체가 밝혀지기도 합니다(요13:26-27)

- 46)성만찬은 교회를 나타내는 네 가지 표지 중 하나입니다
(행2:42)
- 47)성만찬은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기록하게
합니다(계14:1)
- 48)성만찬은 믿음으로 기록한 자들을 더욱 기록하게 합니다
(계22:11)
- 49)성만찬은 장차 있을 심판을 대비하게 합니다(창6:14)
- 50)성만찬은 천국을 고대하게 합니다(마26:29)
- 51)성만찬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빌2:5-7,성탄절)
- 52)성만찬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계19:9)

(눅22: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
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And he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1)성만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분부하신 거룩한 성례로, 이를 행함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성만찬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성만찬을 별나고, 별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라” 말씀하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부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신자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더욱이 주의 종이라면 이를 수행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배의 순서가운데서, 단순하게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만찬으로 믿음의 활력과 믿음의 성장과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전11:23-24)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 교회에도 똑같이 분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를 사도들에게 분부하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생생하게 성만찬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분부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라비아 반도에서 기도할 때(갈1:17)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성만찬에 대한 분부의 말씀을 당시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교회에 바로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태(마26:26-29)나 마가(막14:22-25)나 누가(눅22:14-20)가 전한 그 누구의 말보다 우리의 피부에 더욱 더 와 닿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에 대해 먼저 분부하신 예루살렘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를 다시한번 말씀하심으로써, 성만찬에 대한 당신의 뜻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고, 재차 성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성만찬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 20:7)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e came together
to break bread.**

3)주일 모임은 성만찬을 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 날, 교회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가운데는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도와 찬송도 있고, 헌금도 드립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는 성만찬을 떼기 위함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만찬으로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얼마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현재의 예루살렘 형무소 안에 있습니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큰 홀이었는데, 그 홀 중앙에는 벽돌로 만든 성찬대가 세워져있고, 그 주위 바닥에는 둥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당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고백이 새겨져 있어서, 초대교회가 본문의 말씀처럼 성만찬을 떼기 위해 모였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날 교회에 가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는 성만찬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출20: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Make an altar of earth for me and sacrifice on it your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your sheep and goats and your cattle.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I will come to you and bless you.

4)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데 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 기념이 많다는 것입니다.

각종 기념일과 여럿의 기념 성호들과 기념 표와 기념 책과 기념물들로 가득합니다.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날부터,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레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신약의 주일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온갖 기념물들이 붙어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때에는 강바닥의 열두 돌을 취하여 길가에 그것들을 세우고 대대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기념일에, 하나님께서 기념장소로 택하신 성전에 모여, 자기를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기념하고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주일 날 성전에 모여, 성만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주님을 기리며, 그 위대하신 성호를 기념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출20: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Make an altar of earth for me and sacrifice on it your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your sheep and goats and your cattle.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I will come to you and bless you.**

5) 주님은 성만찬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주님은 성만찬으로 당신을 기념하는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분부를 좇아 성만찬으로 주님을 기념할 때, 주님께서는 그 떡과 잔과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시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에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때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이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변한다고 하며, 더 나아가 그 떡과 그 잔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만찬을 받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다만, 성만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주고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고(Holy Communion)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 안 법궤 위에 강림하시어, 인간들을 대면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성만찬을 떼는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고 만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전10: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You cannot drink the cup of the Lord and the cup of
demons too; you cannot have a part in both the
Lord's table and the table of demons.

6)성만찬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찬위원이 집에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담근 포도주로 성찬을 정성껏 준비하여, 교회로 가져와 성찬대 위에 진설하고 예배에 임합니다.

또 예배 때에는 목사가 성찬위원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모두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식탁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친히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주의 떡이라 하고, 잔도 주의 잔이라 하며, 이를 진설한 식탁을 주의 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는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도 있습니다.

특히 제사상에 올려진 잔과 떡은 귀신의 잔이요 귀신의 떡입니다.

성만찬을 떤 자들은 이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심령을 더럽히고 신앙 양심이 약해져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과 주님의 상은 모두가 지극히 거룩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께 받는 거룩한 은혜들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눅22:14-15)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When the hour came, Jesus and his apostles reclined at the table.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7)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 십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주님은 정성껏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다 와서 먹기를 원하십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식구들 중 누군가 빠지면 아쉽고 그 자리가 허전한 것같이, 주님도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에 누군가 자리에 없으면 굉장히 아쉬워하십니다.

주님의 심정은 늘 때가 되면 식구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식구들 모두가 한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많은 대화 속에서, 더욱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여 주님께서 준비한 좋은 것들로, 영혼에 큰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 때에는 부득한 사정으로 주의 날에 성만찬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배달된 성만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성만찬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기쁨지고 좋은 하늘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먹여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살찌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마다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여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여 성만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8)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식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택하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가족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집안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며, 주님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맏이가 되시는 큰 형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식사 때가 되면 상을 베푸시고 온 집안 식구들을 모으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성만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족들의 밥상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식탁에 아무나 불러서 먹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구가 아니라면 결코 이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과 모두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니 말입니다.

성만찬으로 모든 식구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4:3-5)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Bu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9)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제사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기름과 함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을 때에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데, 그때에 아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상하고 그 상한 마음에서, 잡은 양과 또 양에서 가장 귀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의 출발은 어린 양을 잡아, 그로인한 피 흘림에 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때에 아담은 짐승의 피를 처음 보았고 또 그 피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죄인의 수치를 가리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만찬 예배는 아벨의 제사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피의 제사법입니다.

성만찬 예배는 어느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임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야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그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 예배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레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
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For the life of a creature is in the blood, **and I have**
given it to you to make atonement for yourselves on
the altar; it is the blood that makes atonement for
one's life.

10)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로 드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만민가운데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심령가운데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십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써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피로 세우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생명도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성전도 무용지물이고,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으로 헛수고 일뿐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그 피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의 주의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잔을 통해 주시는 피로써,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 뿌려(벧전1:2)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피로 죄를 속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만찬 예배로 더욱 더 주님의 보혈의 크신 능력을 덧입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26:26)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라 하시고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it**, and bra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od," (KJV)

11)성만찬에는 주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받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만찬에는 주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서 성만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영어의 blessing(축복)은 주님의 피(blood)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저주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질병에서, 무지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운명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는 성만찬을 받는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만찬으로 더욱 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14:18-19)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Then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He was priest of God Most High, and he blessed Abram, saying, "Blessed be Abram by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12)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에게 축복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가 맞았는데, 이 때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 아브람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십분 일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간 떡과 포도주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과 음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써의 축복권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께서 세우신 종들의 축복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히6:20)

오늘도 주님은 세상과 싸우며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자손 된 우리들을, 때때로 영접해주시고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주십니다.

주님은 이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들을 축복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성만찬에는 주님의 크나 큰 격려와 축복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만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로와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전10:16)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Th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is it not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The bread which we break, is it not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KJV)

13) 사도 바울도 성만찬으로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와 축도로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목사는 성만찬으로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만찬 때에 하는 축복은 교인들로 하여금 축복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만찬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의 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만찬을 받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진정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의 떡이 되고 축복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으로 더욱 더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14)성만찬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 가게 합니다

히브리어 중에서 무엇을 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다”인데 이는 단순히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깊은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성관계에도 사용될 정도로 철저히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영생은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가 머리에서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깊이 알아 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 가게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 눈이 자주 주님을 봄으로 우리 눈에서 주님을 익히고, 우리 손끝으로 만져 손이 알아가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입이 주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몸은 죄악으로 영적인 감각을 모두 상실한 채, 정욕에 이끌려 저급한 육체적 쾌락을 좇아 살아왔는데, 성만찬으로 그 감각을 회복하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과 마음에서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 하나를 이루며 살게 된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로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마27:46, 고난주일)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15)성만찬은 우리로 죄와 싸울 담력과 능력을 더해 줍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기 위해 성찬대 앞에 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에는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바라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귀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셨던 주님의 절규도 들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으로 죄의 댓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이라는 크나 큰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것은, 여전히 우리 지체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종 죄의 포로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성도답게 죄가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히12:4)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은, 결코 그 어떠한 타협도 없으시고, 그렇게 냉정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찬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기필코 죄악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요20:27, 부활주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
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16)성만찬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음부에 내려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최대의 현안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따라 몸의 부활을 얻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도마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하여, 도마처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비로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만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져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얻지 못하는, 뜻밖의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성만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망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17)성만찬으로 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얻습니다

성만찬은 축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노라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감사가 넘칩니다.

성만찬은 추도 예배처럼 무겁고 엄숙하게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유교의 전통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의 규례를 보여주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다다케”(Didache)에서 보면, 당시 초대 교회의 성만찬이 넘치는 감사의 축제로서 아주 기쁘고 풍요로운 잔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하신 재림의 약속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환희와 큰 소망 가운데 성만찬을 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데, 성만찬과 함께,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교회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고전10: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Because **there is one loaf**,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for we all partake of the one loaf.

18) 성만찬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령으로 씻어,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과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자매들과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직업과 환경과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한 떡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지체의식을 갖게 하고 교회를 더욱 하나되게 만듭니다.

성찬식 때 주의 종이 하나로 된 떡을 잘게 부수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교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떡을 받는 모두가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한 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일원으로 주님과 그리고 형제들과 서로 지체를 이루고 있음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박힌 주님의 살이, 혈관 속에 흐르는 주님의 피가 우리 심령가운데 역사하여, 서로 서로 마음을 이어주고,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슥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On that day **a fountain** will be opened to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o cleanse** them from sin and impurity.

19)성만찬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씻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없이 죄악으로 늘 심령이 더러워지고, 또 그로 인해 마음을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씻어줄 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마다 씻는 샘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보혈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교회안의 씻는 샘입니다.

수족을 자주 씻어야 건강할 수 있듯이, 성만찬으로 우리 영혼을 자주 씻으면 씻을수록, 우리 마음은 청결해지고 양심은 선해지며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어 더욱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씻지 못하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강박해지고, 마귀는 그 틈을 노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영영히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성만찬으로 늘 심령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요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니이다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20)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만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은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우리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축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듣는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간편하게 성경 66권을 통째로 보고 먹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쉽고 유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듯이, 성만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이 거룩하여지고, 손으로 받을 때 손이 거룩하여지며, 입으로 받아먹을 때 입이 거룩하여 집니다.

또 성찬식 때 받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믿음으로 거룩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으로 여러분이 더욱 더 거룩하여져서, 삶에 큰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26:26)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21)성만찬은 내가 먼저 주는 진리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 사랑으로 지으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은 우리 인류는 그 사랑을, 그 진리의 삶을 완전히 잃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류가 더욱 불행한 것은, 그 진실은 도외시 한 채, 전혀 그렇지 않는 양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갖 탐욕 속에서, 말뿐인 거짓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온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여, 이렇게 내 몸을 주고 내 피도 주고 내 목숨까지 준다”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찬식 때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십시오.

그리고 가서, 이웃에게 주님처럼 조건없이 주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만찬으로 사랑의 능력을 주님께 공급받아 회복된 진리의 삶으로, 더욱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눅22:20, 성령강림주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
라

In the same way, after the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

(겔36: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
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개역개정)

And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move you to
follow my decrees and be careful to keep my laws.

22)하나님은 성만찬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 십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들의 죄 사함이며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부어주심은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들의 죄 사함 뿐만 아니라 성령님까지 부음을 입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 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낌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는 것은 성령님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고전12:13)

성령님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결코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의 일에도 능력을 주시어서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잔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답전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Beyond all question,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He appeared in a body,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was seen by angels, was preached among the nations, was believed on in the world, was taken up in glory.

23)성만찬은 신비하게도 경건의 능력을 더해 줍니다

성만찬을 영어로 가르키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the Sacrament”는 희랍어 “신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만큼 성만찬이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성례임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만찬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은혜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치유와 기적과 여러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성만찬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에서 웨슬리 자신은 사흘에 한 번씩 성만찬을 행하였고, 그의 경건함은 감리교를 세우고 19세기 침체된 영국을 깨웠습니다.

그는 또 형제들에게 최소한 주일마다 한번은 성찬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경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덧입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하겠습니까.

(출12: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The blood wi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No destructive plague will touch you when I strike Egypt.

24)성만찬을 받는 자에게는 세상의 재앙도 넘어 갑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나쁜 질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
납니다.

감기 정도는 아주 흔한 질병이 되었고, 신종 전염병도 종종 우
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나쁜 병원균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몸속에 있
는 피가 건강해야 합니다.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바이러스에
반응하여 그것들을 물리치고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심령가운데 나쁜 바이러
스를 집어넣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너무 강하고 교묘하여, 우리 힘으로는 절대 물리칠 수
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가운데 뿌려지고,
발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몸의 백혈구와 같이, 영적으로 악한 기운
들과 나쁜 바이러스에 반응하여 이를 물리칩니다.

성찬식은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심령 구석구
석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는 시간입니다.

성만찬으로 여러분들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요일1:1,3)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this we
proclaim concerning the Word of life.,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25)성만찬은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도 주님을 만져본 자 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믿고, 놀랍게도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관계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하여 성만찬으로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은혜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으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깊이있는 사귄을 갖는데 있습니다.

성찬식 때에 주님과 더욱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적으로도 보다 깊은 교류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레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When someone brings a grain offering to the LORD,
his offering is to be **of fine flour**. He is to pour oil
on it, put incense on it

26)성만찬은 자기를 부인하신 주님을 본받게 합니다

레위기서에서 제사법을 보면, 거의 모든 중요한 제사가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려 드리는데, 유독 소제만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립니다.

또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포도주로 만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든 떡과 함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제사법과 같은 맥락입니다.

소제의 고운 가루는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고운 가루는 밀의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절구통에 넣어 방아로 찧고 그 안에서 부서지고 또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됩니다.

또 떡은 잘게 부서진 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불로 구어 만드는데, 이 모두는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여 고운 가루가 되어 주신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만찬과 함께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고운 가루가 돼야 할 것입니다.

(히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
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느니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27)성만찬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보며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얼마나 조금하고 참지를 못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급히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금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 참질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치며,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내가 참으로 중요하며, 신앙생활의 승리는 바로 인내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구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을 참아 내셨습니다.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인내는,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 때 여러분이 받는 포도주는, 본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 으깨고 또 으깨서 만들어 낸 포도즙입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인내와 아픔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잔을 받으면, 주님께서 인내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고난에도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롬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28)성만찬은 우리들로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만민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은, 우리로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많은 점에서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얼굴에서부터 분위기와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닮는 점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로 먹는 음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만찬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 가는데 있어 꼭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는 성만찬이 주님께서 손수 차리신 식탁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애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처럼, 주님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애찬을 주님과 겸상하여 꾸준히 먹다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오래 켜 분들을 보면, 얼굴에서부터 은혜가 나타나고 성품 또한 점차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자를 찾으시고 더욱 많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성만찬으로 더욱 더 주님을 닮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29)성만찬은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이외의 어떠한 수고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 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서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심지어는 이단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입술로만이 아닌,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전 인격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만찬은 우리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로, 시급히 주님의 몸을 이식받고 주님의 피를 수혈 받아야만 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됨을 고백하고 온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성만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더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요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30)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 씨앗 위에 당신의 뜻에 따라 새로운 형체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요즘엔 생명 공학의 발달로 복제라는 말이 우리 귀에 낯 설지가 않는데, 복제를 하려면 복제하려는 것의 유전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장차 우리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유전자요 부활의 유전자인 것입니다.

계란에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병아리로 부화가 되는 유정란에는 노른자 속에 씨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 속의 살아있는 씨눈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유전자인 씨눈에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하여 활력을 주고 자라게 하여, 우리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성만찬을 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31)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에 유일한 생명 양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밥이 보약이며 집에서 엄마가, 아내가 해 준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들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음식과 음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양식은 오직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의 밥이 되고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간식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주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성만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양식을 꾸준히 받아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만찬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마치 가시고기가 자기 새끼들에게 자기의 살을 내주어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어 우리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에 더욱 큰 힘을 얻고, 믿음의 행로를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요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32)성만찬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무슨 환상을 본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입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표적일 수 있지만, 그보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하여 기뻐 뛰며 노래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요, 주님은 교회의 든든한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서로를 소유하며, 때를 따라 남편이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성만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마치 부부가 서로를 소유하듯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고,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 영적으로 아내 된 우리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에 “너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만찬으로 남편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더욱 연합하고 하나되어, 신앙생활에 큰 만족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6:57)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33)성만찬은 살아있는 산 자들의 양식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생명을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산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광야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으로 누구든지 그 떡을 먹으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먹는 그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결코 주리거나 곤비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살아있는 산 자들만의 양식입니다.

성만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 생기를 얻고, 산 자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전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
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34)성만찬은 자주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그 횟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성만찬을 자주 반복해서 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초대 교회는 날마다 집에서 성만찬을 떤었으며(행2:46), 시간이 다소 흐른 후에는 안식 후 첫날마다(행20:7) 성만찬을 떤었습니다.

그 전통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 계속되어 그들은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기 보다는,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미사는 예배에 있어 성찬식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고 성찬식을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예배는 성찬 의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 점차 성만찬 실시 회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성만찬을 자주하면 경건성을 잃게 된다고 하여, 가끔씩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성의 문제는 횟수에 달렸다고보다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나 성만찬을 받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찬식은 주님의 뜻을 좇아 자주하면 할수록 믿음에 큰 유익을 주며, 그 횟수에 있어서도 초대교회의 전통을 좇아 매주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전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35)성만찬은 전도의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성만찬을 받는 자는 주님을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신자들이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 “치료할 방법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그 치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에 의한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만찬은 우리들에게 더욱 더 전도의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성만찬을 받다보면, 우리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하루 하루 생명을 연명하며 고통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은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만찬을 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이일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가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듯이,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으로도 그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전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of sinning against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36)성만찬을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합당하게 먹는다”는 말은, 성만찬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먹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보다, 성만찬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체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개 교회의 헌법에는 꼭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주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례에 상관없이 성만찬을 받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장로교회가 많고 후자의 경우에는 감리교회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예배의 질서를 위해 세례교인에 한해서 성만찬을 받도록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교회에 처음 나왔더라도 성만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세례에 상관없이 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성만찬을 통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전11:28-29)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
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 before he eats of
the bread and drinks of the cup.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recognizing the body of the
Lord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37)성만찬은 자기를 살피게 합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매주일 받다보면, 습관화가 되어 별다른 의미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이같은 매너리즘에 빠져 성만찬을 아무런 감동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기에 앞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만찬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좋아 하십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상하고, 아울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성만찬을 받는 것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은 점차 굳어지고 강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을 때 먼저 자기를 충분히 살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인지, 주님께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지, 진정 감사하는 마음에서 받는지, 그리고 의복까지도 단정하게 입었는지, 모든 면에서 자기를 자세히 살피고 받아야 하겠습니까.

(고전11:30-32)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That is why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of you have fallen asleep. But if we judged ourselves, we would not come under judgment. When we are judged by the Lord, we are being disciplined **so that we will not be condemned with the world.**

38)하나님은 성만찬을 받는 자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만찬을 받다보면 매번 온전하게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합당하지 않게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 자는 자까지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례자는, 성만찬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받게 하지 말고 이 다음에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만찬은 잘 받으면 큰 유익이 되지만, 반면에 잘못 받으면 그에 대한 징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만찬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혹 성만찬을 잘못 받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사랑의 징계로 그 사람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본다면 성만찬을 잘 받아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성만찬을 잘못 받아 징계를 받는 것도 그를 회개시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민21:8-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The LORD said to Moses, "Make a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anyone who is bitten can look at it and live." So Moses made a bronze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Then when anyone was bitten by a snake and **looked at the bronze snake, he lived.**

39)성만찬은 우리 영혼의 해독제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영혼의 해독제입니다.

A.D 97년경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붙잡혀 가면서 일곱 편의 서신을 썼는데 그가 쓴 에베소 서신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성만찬을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만일 너희들이 성만찬에 자주 모이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성만찬으로 우리 영혼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공급이 되면, 우리 영혼 안에 퍼져있는 독은 해독되고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사탄의 세력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죄로 불뱀에게 물려 독이 온 몸에 퍼져 죽어갈 때, 하나님은 장대에 뿔뿔을 매달게 하여 그것을 보도록 하였고, 그것을 쳐다 본 자마다 몸에서 독이 해독되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받는 것은 장대에 달린 뿔뿔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의 광선이 그에게 비춰져서 독이 해독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신비한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떠한 독보다 더 강력한 해독제가 되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앙을 몰아내고 대신 감사와 믿음을 더하여, 우리로 사탄의 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마9:20-22)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
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Just then a woman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She said to herself, "**If I only
touch his cloak**, I will be healed." Jesus turned and
saw her. "Take heart, daughter," he said, "your faith
has healed you." And the woman was healed from
that moment.

40)세상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도 나음을 입습니다

본문에 나온 여인은 열 두 해나 혈루증을 앓으며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병 치료를 위해 의원에게 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가산까지 탕진하고 완전히 절망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지나는 길에 있다 주님의 겔옷만 만져도 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겔옷 자락을 만졌는데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 안에서는 아무리 오래되고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다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등에 짊어지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셨으며, 이로써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치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인이 만진 주님의 겔옷 자락 그 이상으로, 더 귀한 성물입니다.

누구든지 성만찬도, 본문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믿음으로 받는다면,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상19:4-8)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

while he himself went a day's journey into the desert. He came to a broom tree, sat down under it and prayed that he might die. "I have had enough, LORD," he said. "Take my life; I am no better than my ancestors." Then he lay down under the tree and fell asleep. All at once an angel touched him and said, "Get up and eat." He looked around, and there by his head was **a cake of bread baked over hot coals, and a jar of water.** He ate and drank and then lay down again. The angel of the LORD came back a second time and touched him and said, "Get up and eat, for the journey is too much for you." So he got up and ate and drank. Strengthened by that food, he travele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until he reached Horeb, the mountain of God.

41)우울증도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때에는 치료가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며, 본문의 엘리야에게서도 우울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갈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울증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때는 치료가 됩니다.

성만찬을 떴 때에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마음속에서 숨어 역사하는 우울한 감정들을 몰아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해산의 큰 고통가운데 낳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살붙이요 피붙이들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러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고, 때마다 도우십니다.

성만찬을 떴 때마다 삶의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살 속에는 주님의 살이 박혀있고 피 속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우울한 감정들을 물리치십시오.

(눅24:30-31)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 보
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When he was at the table with them, he took bread,
gave thanks, broke it and began to give it to them.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42)성만찬은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밝혀 줍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저들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에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지 못한 채,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들과 동행하시며, 먼저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메시야에 대해 풀어 주시고, 그 뒤에는 어느 주막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실 때 떡을 떼어 주셨는데, 그때 비로소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저들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합니다.

눈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닫히고 막힌 다른 지체도 열어주시어서, 우리로 주님을 잘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말씀도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밝히 깨달아 지기도 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에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우리로 더욱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눅22:17, 추수감사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개역개정)

After taking the cup, **he gave thanks** and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

43)성만찬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신 주님을 배우게 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온 피조물을 대신하여,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신 한 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만찬은, 교회가 주님을 이어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대체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감사의 의식”이라는 의미의 “유카리스트”(Eucharis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보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인데 주님의 이 절대적인 감사는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심령가운데 주님의 이 감사의 능력이 녹아 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만찬과 함께 감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로 더욱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일4:2-3)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This is how you can recognize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acknowledges that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is from God,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which you have heard is coming and even now is already in the world.

44)성만찬을 꾸준히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미혹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중심은, 주님의 “성육신”(incarnation)입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은 승천하시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날이 되면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 사실을 왜곡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 사람들로 이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을 내세워 아주 교묘하게 주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며 어떻게 하든 사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경을 영적으로 푼다며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이나 육체로 다시 오시는 것을 교묘히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이러한 이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살후2:11) 성만찬은 첫째가 주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것으로, 성만찬 신앙은 절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동안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만찬을 오염시켜 변질시키거나 훼손시키려고 했으며 앞으로도 그 같은 짓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만찬으로 확고한 믿음을 얻고, 적그리스도의 교묘하고 공교한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13:26-2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Jesus answered, "It is **the one to whom I will give this piece of bread when I have dipped it in the dish.**" Then, dipping the piece of bread, he gave it to Judas Iscariot, son of Simon As soon as Judas took the bread, Satan entered into him. "What you are about to do, do quickly," Jesus told him,

45)성만찬으로 거짓 것이 드러나고 그 정체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수난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주님은 먼저 가롯 유다를 지목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그의 배신을 알리고, 이어서 가롯 유다로 할 일을 속히 하도록 재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떡 조각을 사용하시었습니다.

떡 조각을 가롯 유다에게 줌으로 누가 자기를 팔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또 그 떡 조각을 가롯 유다가 받을 때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그동안 은밀히 진행되었던 음모가 드러나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어느 경우에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위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성만찬이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을 거짓으로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되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도 없으면서 성만찬을 거짓으로 받으면 주님은 그 사람의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더 나아가 그가 계속해서 성만찬을 받지 못하도록, 그의 거짓을 여러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기도 하십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는 주님께 온 마음과 온 몸의 지체를 사용하여 드리는 거룩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행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46)성만찬은 교회를 나타내는 네 가지 표지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대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이 땅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면에서 교회의 모델 격이 되는 교회의 원조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고 좇아가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①사도의 가르침과 ②사랑의 교제와 ③성만찬과 ④기도에 전혀 힘쓴 교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볼 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부족한 점이 성만찬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만찬을 일 년에 그저 몇 차례 정도나 하고, 그나마 중요하다는 인식도 부족한 편입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된 채,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남아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에서 성만찬이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참다운 교회의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교회가 매주일 성만찬을 해야 함을 매우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성만찬이 교회에서 제대로 집행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교인도 교인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Then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the Lamb,
standing on Mount Zion,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47)성만찬은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기록하게 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마귀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쟁의 양상은 양쪽 모두가 사람들의 이마에 주목하여 그 이마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사람마다 그 이마와 오른손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성도에게까지도 자기의 이름을 새기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그에게 주입시켜 그를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만찬은 이같은 마귀의 꾀계로부터 우리를 지켜 줍니다.

본래 식물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성만찬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꾸준히 먹고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만찬은 아예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새겨, 우리로 마귀의 그 어떠한 꾀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때보다 더 힘들게 마귀와 영적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만찬으로 저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어,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하는 마귀와 짐승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계22: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Let him who does wrong continue to do wrong; let him who is vile continue to be vile; let him who does right continue to do right; **and let him who is holy continue to be holy."**

48)성만찬은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을 더욱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회의 모든 면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의 삶도 더욱 구분이 되고 그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저마다 깊은 향락에 빠져 심판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캄캄한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세상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만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만찬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더욱 구별된 삶을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6: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So make yourself an ark **of cypress wood**; make
rooms in it and coat it **with pitch** inside and out.

49)성만찬은 장차 있을 심판을 대비하게 합니다

오늘날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짝하여 한낱 육체가 되어 감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령님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심지어 믿음을 배반하여 교회를 멀리 배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방주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방주를 지어 자신과 가족들을 심판에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지어 심판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잣나무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역청은 주님의 흘리신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자녀들 심령 안에, 방주를 짓고 그 안팎에 주님의 보혈을 칠하여 심판의 홍수로 부터 믿음과 심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로 방주를 더욱 잘 짓게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으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구원의 방주가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만찬으로 더욱 더 온전한 방주를 예비하여 자신과 가족들 모두, 마지막 날 심판에서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마26: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I tell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50)성만찬은 천국을 고대하게 합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말미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 너희가 받는 이 잔은 나와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잔이며, 장차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다시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 갈 천국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갖고, 새로운 처소에서, 새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나무들 가운데에는 포도나무도 있으며,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다시 마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성찬식에서 주의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새것을 나눌 그 날을 소망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고난은 물론 큰 환난까지도 견디고 이기게 하여 마침내 그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빌2:5-7, 성탄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
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51)성만찬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래 순전히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들 곁으로 오시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육신을 벗고 끊임없이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삶에서나, 마귀에게 속아 피조물의 본분을 벗어나, 커다란 착각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어 도리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이같은 교만을 깨뜨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류는 너나없이 하나님을 흉내내어, 선악과를 통해 얻은 교만한 지식과 생각으로 세상을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영과 육으로 나누고, 그것으로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으로, 당신 자신을 아주 작고 보잘 것이 없는 떡과 즙이란 물질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우리로 피조물임을 자각하게 하여 우리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아울러 주님은 그 떡과 잔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본도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성만찬으로 주님의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겸손하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가운데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계19: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Then the angel said to me, "Write: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 And he added, "These are the true words
of God."

52)성만찬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요, 우리 영혼의 최고의 음식이 준비된 천국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285장 4절에서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정녕 우리가운데 큰 기쁨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로 즐거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짐승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 예복이 준비된 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혼인 잔치에 나가는데 필요한 신부단장을 시켜줍니다.

마치 예식장에서 신부가 희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로 신부단장을 하듯, 그날에 있을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입고나갈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을 때에, 자기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절이 잘 간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예복을, 성만찬으로 늘 깨끗이 빨고 또 성도로서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 모두가 다 그 날에 있을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